

TV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로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스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55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특보 (남북이산가족 상봉) 55 안녕 우리말(재)	00 인간의 조건 스페셜	55 특집 MBC 정오뉴스	00 KBC 생활뉴스 30 닥터365 35 인성학단 올드보이가간다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15 인간극장 스페셜 (군세이라 보림아 1~3부)	50 주말드라마(엄마)(재)	00 SBS 12 뉴스 45 특보-남북이산가족 상봉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40 닥터 365 45 2015 평양 산사음악회
2	00 제96회 전국체육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5 리얼스토리 눈 30 토크 키즈스쿨	45 유럽의 해안선
3 00 이언경의 직언직설	55 오늘의 경제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착상 위키	00 MBC 뉴스 10 마법 천자문 40 헬로키즈 싸이결스	00 SBS 뉴스 10 SBS 이슈인 사이드
4 30 쾌도난마	05 한글날 특집 김소월 브라질에 가자 (재)	00 TV 유치원 30 이옥정PD의 요리인류 키친 40 동물의 세계	25 일일특기회 (딱 너같은 딸)(재)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30 꾸러기 탐구 생활
5 5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도교과피	00 위기탈출 넘버원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바이클론즈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25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4차전 (NC vs 두산)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5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구원의 밤성(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밤성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55 MBC 일일특기회 (딱 너같은 딸)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KBS 2015 특별기획 코리아인 지오그래픽 55 송터	00 장사의 신-객주2015	00 수목미니시리즈 (그녀는 예뻐다)	00 드라마 스페셜 (마을-아지아라의 비밀)
11 00 구원의 밤성(재)	00 KBS 뉴스라인 40 청년 대한민국 NCS 미래학교, 재능을 아름다	10 해피 투게더	15 경찰청 사람들 2015	15 300회 특집 자기야
12 40 카톡쇼 X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ayat 뮤직	4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팽팡	14:50 뽀빠에 친구	18:4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3
05:30 건강한 아침	09:40 달라졌어요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8:45 스포랜드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마야의 모험	18:5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06:10 세계의 눈(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9:00 갤럭시 프로젝트
07:00 지파이티스(재)	11:10 다큐 오늘	15:45 꼬피와 친구들	19:30 EBS 뉴스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1:20 세계대미기행 (재)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팽팡(재)	19:50 사선에서
07:45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0:40 다큐오늘
08:00 당동명 유치원 1	12:10 연극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6:45 당동명 유치원1~3(재)	20:50 세계대미기행 (가을의 전설, 캐나다 동부)
08:10 통통가족	13:05 역사채널e	17:30 꼬마버스 타요(재)	21:30 한국기행 (진주는 축제 중)
08:15 그림을 그려요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7:45 로보카 폴리(재)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8:20 당동명 유치원 2	13:40 사이틴 지구인 자격평가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8:30 두다디콩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8:05 출중 슈퍼왕스	23:35 글로벌 가족정적기
08:40 당동명 유치원 3	14:00 곤	18:2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2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4:30 캐니벌	18:25 내 친구 아저	

EBS플러스1

00:00 올림픽스 <국어II-왕자개념>	12:15 올림픽스 <국어II-왕자개념>
00:50 <고교 영어독해-junior>	13:05 수능특강 light <영어-듣기>
01:40 <화환과 통계>	14:0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국어B>
02:30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픽스 <화환과 통계>
03:20 <수학II>	15:40 <기하와 벡터>
04:10 올림픽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16:30 <수학II>
05:00 뉴탐스런 <화환 I>	17:20 올림픽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06:00 <지구과학 I>	18:10 2016 N제 <수학B>
06:40 <세계지리>	19:20 <세계사>
07:30 <법과 정치>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08:2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아)	20:50 2016 인터넷 수능
09:10 <이은주의 수학II>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10:1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영어>	21:50 <문학 B형>
11:00 <수학B>	22:30 박범의 이슈를 만나는 경제

EBS플러스2

07:00 경비지도사 시험대비강좌	15:20 만점왕 <과학 3-2>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5:50 <과학 4-2>
08:30 매경 TEST 시험대비강좌	16:20 <과학 5-2>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6:50 <과학 6-2>
09:10 TV중학 <국어(1)(2)>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 6-1>
09:50 <영어>	18:00 TV중학 <수학3(해)>
10:30 <도덕 2>	18:40 <영어 3>
11:10 <국어(3)(4)>	19:20 필독 중학 국어 <소설>
11:50 <영어 2>	20:00 EBS 인문학특강
12:30 EBS 특강	20:50 EBS 기획시리즈
13:00 데일리 서술형 수학 <사회 1>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3:10 등업신공 <사회 2>	22:00 등업신공 <역사2>
13:50 <역사 1>	22:40 <과학3(해)>
14:30 <역사 2>	23:30 필독중학 <사회2-2>
15:10 오 마이 미래 2035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2일(음 9월 10일 辛未)

子 48년생 최선을 다해야 근사하게 접근할 수 있다. 60년생 황재수가 있으니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72년생 준비가 됐다면 실행에 착수하는 것이 좋다. 84년생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게 타당하다. 행운의 숫자 : 33, 68	午 42년생 방해꾼이 끼여들 수도 있다. 54년생 적용하기에는 미흡함이 상당하다. 66년생 실제 내용을 확인한다면 실행할 수도 있겠다. 78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행운의 숫자 : 18, 76
丑 49년생 소중한 인연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61년생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뒷에 걸려드는 폐해가 있을 것이다. 73년생 새로운 것들을 접할수록 전망이 밝다. 85년생 유리하게 전개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3, 12	未 43년생 안심해도 된다. 55년생 실행의 필요성은 느껴지만 아직 조건을 갖추지는 못한 셈이다. 67년생 마음을 비웠을 때 성취도가 높아지는 편이다. 79년생 무능한 다수보다 영향력 있는 하나가 백만 나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63
寅 38년생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발언해야 한다. 50년생 정확하게 따져야 할 시기다. 62년생 무리하면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74년생 주변의 정보에 알아야한다. 86년생 보람을 느낀다. 행운의 숫자 : 36, 15	申 44년생 획기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56년생 상대의 배려에 깊이 감사하게 될 것이다. 68년생 공 들여왔던 것이 거둬어 잡힌다. 80년생 학습고대하던 행운의 문이 열리는 기쁨이 찾아온다. 행운의 숫자 : 55, 29
卯 39년생 고집적인 병폐를 명쾌하게 해결하는 기쁨이 있다. 51년생 충격을 받고 고민할 수 있다. 63년생 형편에 맞아 감당할 수 있다. 75년생 마힘이 없으니 만사형통이다. 87년생 일상적인 것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4, 37	酉 45년생 갈림길에 서 있으니 냉정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57년생 소모적이라면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69년생 반드시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유지할 수 있다. 81년생 이익이 따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5, 74
辰 40년생 내리막길로 향하려다. 52년생 기대에 못 미치겠으나 전혀 다른 영역을 접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64년생 확인해야 할 때가 됐다. 76년생 계약 전에 있어 특별한 행운이 따르겠다. 행운의 숫자 : 46, 52	戌 46년생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해 왔는가 관건이다. 58년생 가뭄이 여겼던 것 속에 핵심이 숨어있다. 70년생 치밀해야 성공을 높일 수 있다. 82년생 현재의 고스트러움은 미래의 자산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3, 85
巳 41년생 착각하지 말라. 53년생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필요하다. 65년생 직접 행해야 얻는 바가 많다. 77년생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75년생 다들어 살아가지고 하는 실천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07, 71	亥 47년생 계획했던 본래의 의도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다. 59년생 목표를 향해 발돋움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 71년생 대비하지 않는다면 찾아오는 기회도 얻을 수 없다. 83년생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2, 3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허탈한 눈물연기 해보고 싶었어요”

영화 ‘그놈이다’ 장우 역 주원

신기에 가까운 의술을 선보이는 ‘용팔이’로 시청률 20%를 넘기며 흥행 대박을 낸 배우 주원(28·사진)이 시골 동네 청년으로 힘을 쫓고 돌아왔다.

28일 개봉하는 스릴러 영화 ‘그놈이다’(감독 윤준형)에서 주원은 재개발을 앞둔 부둣가 마을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빼앗길 위기에 처한 집 한 칸과 여동생뿐인 청년 장우 역을 맡았다. 주원은 후출극한 모습으로 허탈한 눈물을 삼키는 이 역할이 자신에게 꼭 필요했고, 꼭 하고 싶었다고 했다.

“정말 하고 싶었어요. 처음 어머니께 ‘라면만 먹고 살아도 좋다’며 배우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던 때부터 세웠던 계획이 있어요. 20대에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색깔이 정해졌다면 30대에는 변화를 줘서 제가 봐도 멋있고 색다른 선배들 같은 배우가 되자. 그러려면 지금 장우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30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꼭 도전하고 싶었죠.”

밀바닥까지 굽어내는 감정부터 맨몸으로 사방을 뛰어다니는 액션까지 두루 꺼내 보여야 하는 장우는 이제 ‘청년’에서 ‘남자’로 건너가기로 결심한 배우에게 최적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주원은 그 선택을 실행에 제대로 옮겼다.

“감정적인 연기는 솔직하게 했어요. 죽은 동생을 꺼안고 우는 장면을 찍을 때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슬펐다가, 화도 났다가, 공인가 생시인가, 복잡한 느낌이 실제로 들었고요. 유지정 선을 찍을 때도 솔직한 감정으로 꾸미지 않고 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느낌을 연기로나마 느꼈거든요.”

액션 연기도 그렇다. 육체적으로 더 힘든 연기는 신출귀몰한 영웅 역할을 해야 했던 드라마 ‘각시탈’ 때였지만, 감정이 뒤섞인 맨몸 액션을 해야 했던 이번 영화가 더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았다고 한다.

“영화에 ‘항방’이 되는 액션은 없어요. 감동님이 저를 캐스팅한 이유가 장우가 강한 남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자가 오직 동생을 위해 뛰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액션은 많이 힘들었어요. 몸보다 정신적으로 감정이 들어간 액션이었으니까요.”

“그놈이다”는 주원에게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사람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영화배우로서 생각을 넓혀준 작품이다.

한 속속사 식구지만, 함께한 작업은 이번이 처음인 배우 유해진(민약국 역)도 그 점을 일깨워준 선배다.

“이 영화만 5년 동안 준비한 감독님은 다른 얘기를 하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데 해진 형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캐릭터와 유해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작품이 이렇게 하면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극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고 욕심을 낼 줄도 알고, 존경스러워요. 저도 작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20대에는 ‘멋있어 보여야 하는데’ 같은



은 이런저런 걱정이 있었다면 그런 걸 버리고 작품이 잘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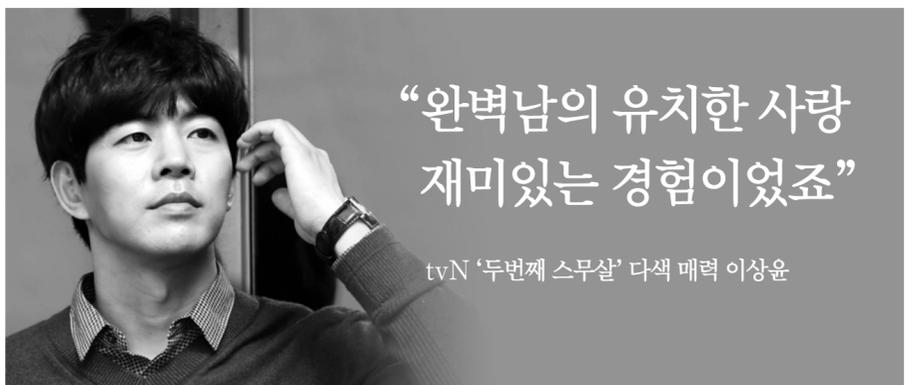
영화배우 주원에게 “함께한다는 느낌을 안기는” 무대라면, 드라마는 “배우로서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생기는” 무대다. 그는 ‘제빵왕 김탁구’를 시작으로 최근 ‘용팔이’까지, TV 드라마로 줄줄이 히트를 쳤다.

“드라마는 제게 ‘모두를 신경 써야 하는 곳’이에요. 감독님도, 스태프도, 다른 배우들도. 보조출연자도 모두 중요하죠.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많이 생겼어요. 드라마는 환경이 빽빽해서 모두 바쁘니까, 이 작품은 내 작품이고 내가 모두를 신경 써야 한다, 주변배우인 나를 모두 챙겨주지 내 여유를 다른 사람한테 풀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에게는 영화와 드라마 외에 하나의 무대가 더 있다. “애니지를 모두 쏟아부을 수 있는” 뮤지컬이다. 작년에도 ‘고스트’에서 주연을 맡았다.

“정말 소중한 곳이에요. 공연을 하다 보면 무대하고 관객석이 분리되면서 내가 실제 공간에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짜릿해요. 관객이 연예인, 배우가 아니라 사람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있는 그대로 캐릭터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정말 좋아요.”

이제 자기작을 결정하지 못한 그에게 지금 가장 큰 욕심은 이 영화의 흥행이다.



“완벽남의 유치한 사랑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tvN ‘두번째 스무살’ 다색 매력 이상운

“스무살로 돌아가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볼 것 같아요. 미팅도 해보고 배낭여행도 가고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요. ‘두번째 스무살’에서 민수가 워킹홀리데이를 간 것처럼 해외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문화와 생각을 일찍 접했다면 제 인생도 또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tvN 드라마 ‘두번째 스무살’을 막 마친 배우 이상운(34·사진)은 변화에 목말라 있는 듯했다.

그는 “남들 앞에서는 멋지기로 한 성공한 30대 남자가 첫사랑 앞에서 유치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여러 성격이 드러나는 캐릭터는 처음이어서 재미있게 연기했다”며 “이게 연기하는 재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양한 캐릭터에 대한 욕심도 생겼다”고 말했다.

서울대 출신으로 연예계 대표 ‘엄친아’로 꼽히는 그는 요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연기를 하기 전에는 더 내성적이고 소심했는데 점차 외향적인 쪽으로 변하고 있다”며 “저를 보통 ‘훈남’ 이미지로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또다른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 드릴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두번째 스무살’에서 20년간 간직해온 첫사랑 하노라(최지우 분)를 우연히 다시 만난 차현석 역을 연기했다.

하노라가 이미 ‘실질적 이혼 상태’였고 잠시지만 시한부인 줄 알았던 상황이 있지만, 늦깎이 대학생이 된 여자가 어릴 적 첫사랑의 대시를 받고, 결국 이혼한 뒤 새로운 삶을 산다는 ‘두번째 스무살’은 자칫하면 그렇고 그런 통속 드라마로 흐를 수 있었다.

“노라가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불륜이나 일방적인 집착으로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남자로서의 감정이 전혀 안 나타나면 멜로가 안되잖아요. 제가 잘못 표현하면 이야기 전체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

민을 많이 했죠.”

친구와 남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던 이상운은 “첫 대본 읽기 때부터 절대로 불륜으로 보이면 안된다고 당부를 하셨기에 연기도 신경을 썼지만 시한부나 남편의 불륜, 버티리스 트 등 현석의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장치들을 대본 곳곳에 만들어 주셨다”며 공을 소현정 작가에게 돌렸다.

노라를 몰래 챙겨주면서도 겉으로는 가질하게 대하는 현석 캐릭터에 대해 이상운은 “남자들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세심하게 챙겨주기가 쉽지 않은데 몰래해야 할때는 몰래, 강하게 나서줘야 할때는 강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다”며 “제가 봐도 ‘멋진 놀이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저는 챙겨주고 모르는 척 하는 것은 하지도 못하고 친절하지도 않다. 차현석과의 싱크로율은 50% 정도”라며 웃었다.

하노라 역의 최지우와는 2007년 MBC TV ‘에어시티’ 이후 8년 만에 재회했다. 당시 최지우는 여주인공, 이상운은 신인배우로 단역이었다. 노라 역에 최지우가 캐스팅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극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어줬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그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발연기’라는 이야기는 안 들을 것 같다”고 안도하기도 했다.

‘엄친아’ 이상운은 이렇게 말을 맺었다.

“저는 많이 부족한 데도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히 ‘모두들 꿈에 도전하세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 경험상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면 그 다음 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결과를 생각하며 일할 땐 예전만큼 연기가 즐겁지 않고요. 이상적이지 모르지만 어떤 일인데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연휴뉴스